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특별전도팀 본격적 활동 재개

### 전국 제단 전도 활성화 위한 시동 부산제단 마산제단부터 걸어

3월이 되자 특별전도팀(이하 특전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3월 12일에는 부산제단, 3월 19일은 마산제단을 방문하여 전도활동을 벌였다.

#### 부산역 광장에서 단체 노방전도 실시

특전팀은 예배 후 부산제단 신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점심식사 후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단체노방전도를 실시하여 부산역 주변에서 영생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노방전도에서 3명이 영생의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갖는 등 부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김원찬 부산제단 책임승사는 "특전팀의 방문으로 부산제단 및 영도제단 식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전팀이 부산제단 방문에는 윤봉수 신도회장, 김만철 부회장이 동행하여 부산제단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 부산제단 방문 윤봉수회장 말씀

### "구세주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자"



신도회장은 우리 식구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제단에 방문한 것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고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 나라의 의식을 박살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의 의식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저도 반대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장 어려운 것은 아플 때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이 마귀새끼 아프니까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라"고 구세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지무지하게 아플 경우 고소하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시민들이 많이 호응했다

#### 마산 용지공원 노방전도 실시

특전팀은 부산제단 방문 1주일 후

(3.19) 마산제단을 방문하였다. 마산제단에서는 특전팀 방문을 계기로 제단 보수 및 환경정리 활동을 하여 제단을 아름답고 정결한 환경으로 꾸며놓았다. 또한 새식구 2명을 전도하여 예배에 참

김중천 기자

석시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다. 마산제단 안병관 책임승사는 "특전팀 방문이 우리 제단이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지방제단 활성화 방안 강구 요청

예배 후 간담회에서 부산제단과 마산제단 공회 해외주님께서 각 지방제단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고, 절기날 2부 경축행사를 간결하게 끝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은 누구나 인류 구원이라는 구세주 하나님의 2차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전팀은 보광 후 열매 맺기가 무척 어려워진 상황을 타파하고 전국 각 제단과 본부제단간의 소통을 촉진하며, 구세주의 보광에 대한 신앙 재정립과 그에 따르는 전도 열기 재충전을 목적으로 2015년에 조직되었다.\*

## 구세주 보광 후에도 계속 내리는 이슬성신



강옥순 승사 임명 시(2016. 1. 17)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사진부장 촬영

구세주의 증표는 이슬성신이다. 성경, 불경, 그리고 격암유록 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신이 구세주라거나 정도량이라거나 또는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표가 되는 이슬성신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는 가짜이며 사이비다.

이슬성신에 대하여 그 경전적 전거(典據)를 최초로 언급한 존재들이 바로 조희성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승리제단 교인들이다. 그분들은 조희성님이 구세

주, 정도량, 그리고 미륵불이라든 반드시 경전에 그 증표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찾아보니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는 이슬(호세아 14:5), 불경에는 감로(열반경 전권), 격암유록에는 감로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 조희성님은 하나님의 신이다

조희성님은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이므로 보광하신 후에도 분신(分身)으로서 신도들이 목격한 경우도 있고, 꿈에 현몽하기도 한다. 또한 계속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아 구세주임이 틀림없다. 이슬성신은 구세주의 분신(分身)이며 성경 상의 생명과요 불경 상의 감로(甘露)이며 진사왕이 그토록 찾았던 삼신산의 불로초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8)

### "자유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요, 마귀를 죽이는 법이다.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법인 고로 마귀인 나를 죽이는 법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유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에 가게 되어 있는 고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죄가 바로 '나'라는 의식인 고로 '나'를 의식하는 순간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자유율법을 어기면 그 즉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고로, 짓밟으로는 지옥



## 큰 일

###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살리는 일이다

보통 사람들도 한때는 야망을 품는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름대로 갖는다. 썩어빠진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며 높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말해보기도 한다. 당신은 어떤 포부를 가졌는가?

가기도 하였고, 어렵다는 철학책을 거의 다 읽어봤으며, 죄를 짓지 않으면 영생한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하여 수많은 날과 밤을 새우며 끈두박질치며 하나님께 애걸복걸 죄 짓지 않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애원하셨다고 한다.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디딘 채 포부를 밝히는 사람들은 몇지다. 집념으로 불타는 눈을 바라보는 것은 아름답다. 원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로 유쾌해진다.

드디어 40여 년간 궁구한 끝에 영생의 고지에 올라서게 되었고, 인류를 영생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게 되시니 어린 시절 풀었던 그 포부를 드디어 이루셨던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철학적 근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람은 왜 죽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지, 사후세계가 있는 것인지 등등 수많은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하여 짧은 날을 보내시다가 '내가 이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야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영생의 조류에 올라타게 하는 일이다. 승리제단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종교단체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일을 하는 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세상에서는 허접한 일로 보이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승리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왜 죽는 것인지 알기 위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

따라서 사망의 조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만큼 큰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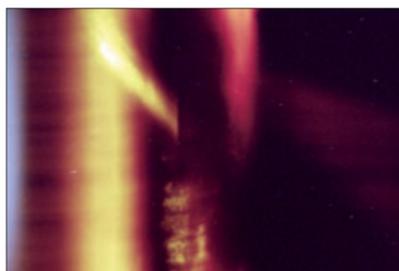
감로



2016. 1. 17 본부제단 비서실 입구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2016. 1. 17 본부제단 비서실 입구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2016. 1. 17 본부제단 비서실 입구에서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